

◆ 04년 9월 고2 20~23번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학의 세계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은 성직자나 철학자가 상대하는 인간이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인간과는 크게 다른 존재다. '경제인'(經濟人, homo economicus)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는 '자기의 쾌락을 극대화하는 데 삶의 초점을 맞추는 합리적인 인간'이다. 이는 '경제인'의 특징이 '합리성'(合理性)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성은 경제학의 대상을 규정짓는 가장 강력한 기준일 뿐만 아니라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올바른 선택'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합리적 인간'이 지닌 구체적 특성들은 무엇인가?

'합리적 인간'은 자기의 이익에 철저한 이기적인 인간이다. 그는 오직 두 개의 가치에만 관심을 기울이는데, 하나는 쾌락이요 다른 하나는 고통이다. '합리적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의 고통을 회피하려 한다. 무엇이 쾌락이고 무엇이 고통인지는 오로지 그 자신만 안다.

또 '합리적 인간'은 효율성을 추구한다. 여기서 효율성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합리적 인간'의 태도는 윤리·도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고, 주어진 조건 아래서 언제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합리적 경제인'이다. 그러므로 그의 이기적인 선택 또한 언제나 '합리적'이다.

현대의 경제학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효용함수'(效用函數)라는 것에 담아놓았다. 가장 단순하게는 $U=f(C)$ 로 표기하는 효용함수는 행복의 수준(U, utility)과 재화소비량(C, consumption)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공식대로 해석하면, 나의 재화 소비량이 증가하면 나의 행복이 증가하고 소비량이 감소하면 행복도 감소한다는 것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을 소비하느냐는 나의 행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나의 소비량 또한 다른 사람의 행복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다. 이는 일정한 양의 재화를 소비하는 데서 내가 얻는 만족이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재화의 양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학 세계의 인간은 자기의 행복을 키우는 데 철두철미한, 이기적이고 고립된 존재다. 현실에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위하는 이타적 심성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지만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행동은 불합리한 것이 된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사람을 '이타주의적 효용함수'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한다. 그의 행동이 아무리 감동적이라 할지라도 경제학은 이 예외적인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경제학의 세계에서 인간은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정리(定理) 또는 이론들은 바로 '이기적 인간'을 토대로 삼아 엄정한 수학적 증명 과정을 거쳐 확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경제인**의 개념을 정확히 받아들이고 경제인 스스로 내리는 모든 종류의 경제적 선택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20. 경제 관련 강연회에서 위 글의 내용을 활용하고자 한다. 강연회의 제목과 활용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제적 성공의 길, 경제학에 있습니다.'
- 경제적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의 행동 지침으로 소개한다.
- ② '소비자, 현대 경제의 중심 코드입니다.'
- 기업인들에게 소비자의 생리를 이해시키는 근거로 활용한다.
- ③ '경제학, 탄탄한 기본 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 경제학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인식으로 제시한다.
- ④ '경제적 합리성,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 경제적 좌절을 겪은 사람들에게 재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로 활용한다.
- ⑤ '경제적 행복, 나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이익의 예로 활용한다.

21. **경제인**의 관점에서 다음에 나타난 '나'의 행위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다리가 휘어지게 잘 차린 밥상을 받았을 때, 마침 우리 집 문간에 며칠을 굶은 사람이 힘들게 앉아 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마음이 불편해서 진수성찬이 자꾸만 목에 걸렸다. 결국 나는 밥상을 대문 앞의 걸인에게 내 주었다. 그로 인해 나는 물과 밥과 김치만 먹었지만 마음은 편안해졌다.

- ① '나'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보통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일을 했다.
- ② '나'는 평균적인 인간이 아니라 이타주의적 효용함수가 큰 인물이군.
- ③ '나'는 자신의 소비량을 줄이고 남의 소비량을 늘림으로써 더 행복해졌군.
- ④ '나'의 행복은 타인의 소비량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소비량에 달려 있는 거야.
- ⑤ '나'의 물질적 소유량이 손실되었으므로 '나'의 행동은 비합리적이라 할 수 있어.

22. 다음을 참고하여 [A]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우연히 백만 원의 돈을 얻게 된 세 명의 사람이 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갑'은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을 모두 사들여 마음껏 읽겠다며 콧노래를 불렀다. '을'은 '갑'이 왜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자기 학대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친한 친구들을 불러 밤새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며 즐겁게 놀았다. '병'은 그 돈으로 여러 차례 미웠던 값비싼 피부 마사지와 미용 관리를 받을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다.

- ① 사람마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 기준이 다르다.
- ② 쾌락의 비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 ③ 물건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낫다.
- ④ 이익을 위해서는 철저히 이기주의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
- ⑤ 나 자신의 이익을 남에게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3. ㉠의 의미를 설명할 때 활용하기에 알맞은 속담은? [1점]

- ① 사춘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
- ② 남의 염병도 제 고뿔만 못하다.
- ③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 ④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 ⑤ 곳간에서 인심 난다.

◆ 10년 6월 고1 28~31번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여러분은 “이미 얼질러진 물이야. 후회하지 마.”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깊은 진실이 담겨 있다.

(나) 경제학자들은 편익을 ㉠ 얻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편익은 비용의 대가로 얻는 만족, 이익을 뜻한다. 기회비용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편익을 얻기 위해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기회비용은 ‘매몰비용’이 된다. 매몰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이다. ㉡ 한번 지불하고 나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 놓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미 매몰된 비용들은 감안해서는 안 된다.

(다) 매몰비용이 의사결정과 무관해야 한다는 사실로부터 기업들의 의사결정 ㉣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대부분의 미국 내 대형 항공사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어떤 해에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항공이 각각 4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본 적도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계속 표를 팔고 승객들을 실어 날랐다. 이러한 결정은 다소 ㉥ 의아하게 느껴질 것이다. 왜 항공사 경영진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라) 항공사들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공사들 비용의 일부가 매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항공사가 비행기를 샀고 그것을 다시 팔 수 없다면 그 비행기에 대한 비용은 이미 매몰된 것이다. 운항의 기회비용은 연료비, 조종사와 승무원의 임금 정도가 될 것이다. 운항을 선택함으로써 써야 하는 비용보다 기업이 운항을 통해 벌어들이는 총수입이 크다면 항공사들은 계속 영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마) 매몰비용이 의사결정과 무관함은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는 것에서 10,000원의 만족감, 즉 편익을 얻는다고 하자. 영화표를 7,000원에 샀는데 실수로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 표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다시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정답은 다시 표를 사는 것이다. 영화를 보는 것의 편익(10,000원)은 여전히 기회비용(표를 다시 사는 비용 7,000원)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이미 잃어버린 표의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이미 얼질러진 물이니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것이다.

28.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속담을 인용하여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나)는 대상을 비교하여 공통 속성을 찾고 있다.
- ③ (다)는 실제 사례를 제시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④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알려주어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마)는 일상의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를 깊게 하고 있다.

29. (다)~(라)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총수입이 매몰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 ② 총수입이 기회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 ③ 매몰비용이 기회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 ④ 매몰비용이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 ⑤ 기회비용이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30. (마)를 이해한 뒤, <보기>에 나오는 김씨의 상황을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20,000원 ————— ㉠

10,000원 ————— ㉡

0원 ————— ㉢

-10,000원 ————— ㉣

김씨는 20,000원을 지불하고 뷔페에 갔다. 그런데 얼마 먹지 않아 배가 충분히(만족도 100%) 불렀다. 먹은 음식 가격을 계산해 보니 10,000원어치였다. 지불한 돈이 아까워진 김씨는 고민에 빠졌다. ‘돈을 낸 만큼은 먹어야 하는데…….’

- ① 지불한 매몰비용은 ㉠이다.
- ② 얻으려는 편익은 ㉠ 이상이다.
- ③ 실제 얻고 있는 편익은 ㉡이다.
- ④ 더 먹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은 ㉢ 이상이다.
- ⑤ 더 먹어서 배탈이 난다면 편익이 ㉣가 될 수도 있다.

31. ㉠~㉣와 바꾸어 쓸 수 없는 것은? [1점]

- ① ㉠ : 획득하기
- ② ㉡ : 일단
- ③ ㉢ : 배제하고
- ④ ㉣ : 과정을
- ⑤ e : 이상하게

◆ 11년 4월 고3 41~43번

[41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물건들을 살 수 없는 것은 소득의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최적 선택은 주어진 금액 안에서 최대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최적선택을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으로 설명하고 있다.

편의상 소비자가 X재와 Y재라는 두 상품만을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비자가 구입하는 두 상품의 수량적인 구성을 상품조합이라고 한다. 다음 표는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X재와 Y재의 상품조합들을 나타낸 것이다.

상품 \ 상품조합	A	B	C	D	E
X재	1	2	3	4	5
Y재	12	8	5	3	2

위 표의 각 조합 A~E의 구성을 보면 소비자는 X재를 얻기 위해 Y재의 소비량을 줄여 동일한 만족감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소비자가 X재 소비를 1단위 증가시킬 때 감소시켜야 하는 Y재의 양을 한계대체율이라 한다. 위 표에서 한계대체율의 변화를 보면 소비자의 선택이 A→B→C→D→E로 이동해 갈수록 X재를 얻기 위해 감소하는 Y재의 양이 같은 개수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4→3→2→1개씩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어떤 상품의 보유량이 많으면 그 상품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소비자의 경향을 보여준다. 즉, Y재가 많을 때는 X재를 얻기 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Y재를 더 많이 내놓고, Y재가 적을 때는 X재를 얻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진 Y재를 적게 내놓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품 교환 방식으로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상품조합들을 가로축은 X재의 양을, 세로축은 Y재의 양을 표시하여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면 '무차별곡선'이 만들어진다.

소비자는 한 무차별곡선 상에서는 같은 만족을 느낀다. 그런데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수준은 다양하기 때문에 무차별곡선은 여러 개가 그려질 수 있다. 따라서 동일 상품에 대한 한 소비자의 여러 무차별곡선은 소비자의 서로 다른 만족수준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소비가 많아질수록 만족수준이 높아지므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무차별곡선 중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무차별곡선은 소비자의 가장 높은 만족수준을 보여준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택에는 항상 주어진 소득이라는 제한이 있다. 소득의 제한 안에서 편의상 X재와 Y재를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최대한 구입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조합을 연결해 놓은 선분을 예산선이라고 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최적 선택은 만족이 높은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한 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소비자의 최적 선택은 소득의 변화와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라 최적점의 위치가 달라지게 된다.

41. 위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가격이 변하면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는 지점이 달라진다.
 - ② 무차별곡선에는 상품조합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포함되어 있다.
 - ③ 소비자들의 최적 선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고려해야 한다.
 - ④ 무차별곡선은 소득의 제한 안에서 구입 가능한 X재와 Y재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 ⑤ 상품조합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 정도에 따라 무차별곡선은 여러 개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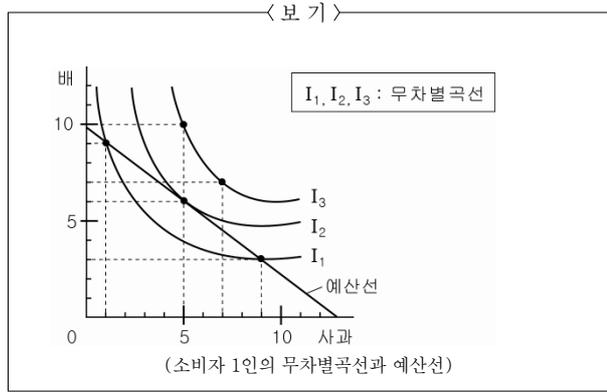
42.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X재가 불펜, Y재가 연필인 한 무차별곡선에서 소비자가 불펜 3개와 연필 8개를 살 때와 불펜 4개와 연필 5개를 살 때 같은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자. 이때 불펜의 소비가 3개에서 4개로 증가하면 한계대체율은 3이 된다. 또한 같은 무차별곡선 상에서 불펜의 소비가 4개에서 5개로 1단위 증가하면 한계대체율은 3보다 작아지게 된다.

- ① 불펜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불펜의 상대적 중요도도 높아지겠군.
- ② 불펜과 연필을 살 때는 한계대체율이 가장 작을 때 만족도가 가장 크겠군.
- ③ 한계대체율이 3보다 크다면 불펜의 개수가 연필의 개수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겠군.
- ④ 한계대체율이 작아지는 것은 연필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겠군.
- ⑤ 불펜과 연필로 조합된 무차별곡선 상에서 불펜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한계대체율은 증가하겠군.

43.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그래프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과 5개와 배 6개를 사는 것이 소비자의 최적 선택이다.
- ② 사과 9개와 배 3개보다 사과 1개와 배 9개를 살 때 만족도가 크다.
- ③ 사과 5개와 배 10개를 사거나 사과 7개와 배 7개를 살 때 만족도는 같다.
- ④ 사과 5개와 배 6개를 사는 것보다 사과 7개와 배 7개를 살 때 만족도가 크다.
- ⑤ 사과 5개와 배 10개를 사는 것보다 사과 9개와 배 3개를 살 때 만족도가 작다.